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 안에 '태동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9월 창간

1946년 4월 창간 | 재발행 2007년 9월 16일 제 2841호 ihonam@naver.com 2019년 12월 24일 (음력 11월 28일) 화요일

"옛 광주교도소 유골과 5·18 연관성, 의혹 없이 풀겠다"

국과수 법의학 전문가 사전회의…정밀감식 계획·대책 논의

"투명하게, 관련기관과 협의…어느 한쪽 독단적 진행 않을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견된 신원미상 유골과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의 연관성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풀겠다"고 밝혔다.

양경무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장은 23일 장성 국과수 광주연구원에서 법의학 전문가 사전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과수는 이날 양 센터장 주관으로 박종태 전남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의학 전문가 사전회의를 열고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40여구 유골의 정밀감식 계획과 대책 등을 논의한다.

양 센터장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의혹을 풀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 광주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낙 뼈가 많이 발견돼 발견된 상황 등 수사 기관의 정보와 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뼈 상태를 파악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골이 5·18과 관련한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진다면 국과수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과 향후 출범할 5·18진상규명위원회의 규정에 따라갈 부분을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유골이나 장비, 인력 등을 원주 본원이나 서울연구소 등으로 옮기는 부분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 센터장은 "광주연구소가 좋은 점도 있고 서울연구소나 본원도 좋은 점도 있다"며 "이 부분도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에 대해서는 "법의학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할 여지를 달라"며 "현재로서는 뭔가를 정해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 있던 무연고자 분묘에 대한 이장 작업을 하던 중 지난 19일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구를 발견했다.

애초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교도소 내 무연분묘의 유골은 111구였으나 이번 개장 과정에서 발견된 유골 40여구는 법무부가 관리하지 않은 유골로 확인됐다.

이 유골은 2기의 합동분묘 중 한 곳에서 발견된 가로와 세로 각 1m 크기의 콘크리트함 위, 봉분 흙더미 20~30㎝ 아래에서 별도로 발견됐다.

법무부와 국과수, 경찰, 군 등이 함께하는 합동조사반은 지난 20일 오후 늦은 시간 신원미상의 유골 40여구에 대한 육안감식을 마쳤다.

육안감식 과정에서 2개의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유골 중 하나는 크기가 어린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장성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열린 옛 광주교도소 부지 신원미상의 유골 40여 구 발견 관련 법의학 전문가 사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녀상, 따뜻한 겨울 나길" 북구소녀상 평화인권추진위원회가 23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망토를 둘러주고 있다.

성탄절 휴무로 다음 호 27일자 발행합니다

쌀 100포 익명기부 등 함평지역 연말 온정 이어져

쌀 100포 익명기부 등 함평지역 연말 온정 이어져

익명의 독지가가 쌀 100포대를 기부하는 등 전남 함평지역에 연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함평읍과 신광면에 쌀 100포(10㎏ 기준)를 익명이 독지가가 기부했다.

함평중앙교회 최창영 목사와 신도들이 400만원을, 함평석성교회 정남 목사와 신자들이 100만원을 각각 함평읍에 기탁했다.

함평지역 맛집으로 잘 알려진 정(鄭)경복궁의 홍경미 대표가 200만원을, 농업회사법인 ㈜드림피그 송석찬 대표도 100만원을 보내왔다.

이와 함께 함평군 배구협회(회장 전병렬)에서 166만5740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김영록 "전남 동부권, 경제발전 견인 핵심축"

전남도는 23일 순천 마리나컨벤션에서 민선7기 도정 운영 방침인 '현장 중심의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남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자문협의회 위원장인 박봉순 동부지역본부장, 동부 7개 시·군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는 동부권 7개 시·군 도민 중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100명으로 구성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도정 주요 성과와 2020년 역점 추진시책 등을 듣고 도정에 대해 느꼈던 소감과 현안업무 등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김영록 지사가 제시한 차세대 드론산업 및 광양항 발전 전략 등 전남 동부권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청사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